

1. 합격 정보

1 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66	60	64	70
2 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63	34.35/ 28	35.25/24.5	45/20.25

2. 합격자 학습 정보

1차 시험 응시 횟수	(3) 회
2차 시험 응시 횟수	(2) 회
총 수험 기간	(44) 개월
1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학원 및 인강
2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학원
법무사단기 수강 이력 여부	있음

3. 합격 후기

- 어떻게 학습하셨는지 주제별로 작성해 주세요! (글자 수 제한 없음)
- **주제1~5 모두 작성해주세요!**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 어떻게 수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등

저는 중학교 3학년때부터 클래식 작곡 공부를 시작하여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여 방송국 및 컨첸츠 제작회사등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아 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고 공인단기를 통해 3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을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해오던 중 남자친구(현재의 남편)의 권유로 법무사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기에 처음 1차 공부는 직장 병행을 하며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 접한 1차 시험은 사실 시험의 난이도도 전혀 모르고시험장 분위기를 보고, 혹시나 하는 행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고, 불합격하였으나 공부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생각보다 점수가 나쁘지 않아 이듬해 다시 1차 시험을준비하였습니다.

2번째 1차 시험 2개월을 앞둔 시점에 결혼을하게 되어 결혼 준비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다 보니 두 번째1차 시험역시 불합격 결과를받게 되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2번이나 합격자 커트라인에서 2-3점 차이로떨어지다 보니..직장병행 등을 핑계로 나태해지는 모습들에 반성을 하고 3번째 1차 시험(2022년)을 준비할 때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2022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차 시험은 첫 기득권인 2023년 11월(29회) 시험에 합격하여 총 수험 기간은 44개월 입니다. (1차 30개월, 2차 14개월)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 나만의 학습계획 수립법 / 스터디, 서브노트 활용법 / 하루 공부 계획 등

1차 시험

1순환 기본강의

1차수험 기간이 나태한 생활태도로 길어지다 보니, 그 와중에도 몇 번 들어본 내용이라고 강의가 조금씩 지겨워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순환 강의는 학원에서 실강으로 들었습니다.

2순환 문제풀이 강의

1차 시험 2번의 불합격을 통해 느낀것은 교수님들의 강의는 너무 이해도 잘 되고 좋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나만의 공부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순환때는 실강을 듣지 않고 집에서 미리 객관식 문제집을 혼자 각 과목별로 풀고, 해설답안을 혼자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판례들 위주로 해당 과목의 인강을 조금 빠른 배속으로 들었습니다.

3순환 최종정리 강의 및 진도별 모의고사

3순환 강의부터는 학원에 다시 나가 실강으로 강의를 들었고, 2022년 1차 시험이 갑자기 2개월 늦춰지며 듣게된 진도별 모의고사 순환을 통해 다시 한번 과목별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아..그래도 이제 어느정도 전 과목이 정리가 되어간다” 라고 느낀 시기가 이 시기였기 때문에. 진도별 모의고사가 끝날때 즈음 학원에서 기존부터 치러왔던 6회차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을 구매하여 1차 시험 2주 전부터 하루에 한 회차씩 풀고 오답 정리를 하였습니다.

나만의 노하우

저는 직장병행과 결혼 준비 등의 다양한 이유를 핑계로 1차 수험생활이 2년정도 더 길어지게되었기때문에, 단기에 합격할만한 팁은 사실 경험하지 못하여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학원 또는 인강 커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내것으로 만드는 나만의 공부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노력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거라 생각합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그리고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때 했던 노하우를 1차 시험에도 적용하여, 타사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도 2회차씩 구매하여 시험 보기 2주 전에 풀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내가 익숙하게 들던 수업과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부분들의 대부분은 타사 학원 강의와도 마찬가지로 중복됩니다.

다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의 답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전혀 접하지 못하던 지문들을 다수 보았을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멘탈이 흔들려 아는 문제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출제자 성향에 따라서 같은 판례를 축약하여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판례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충분히 발생하고, 또한 출제자가 중요시 하는 판례들이 학원별로 다를 수 있기때문에, 낯선 지문을 보아도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사 2곳의 모의고사를 홈페이지 또는 쿠팡을 통해 구매하여 연습을 하였습니다.

간혹 타사 문제를 풀며 내가 지금까지 단기에서 보던 모의고사 문제들처럼 문제가 깔끔하지 못하고 좀 문맥도 이상하고 지저분하다 느껴지는 학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점 결과도 단기 학원 모의고사 문제로 60점후반 - 70점 초반이 나왔었는데 타사는 63점-65점 정도로 점수가 평균 5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제자의 성의도 시험문제의 난이도나 체감난이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낯선 출제자의 문장을 접하여 긴장한 상태에서 보는 연습이 마치 시험 실전과 가장 비슷한 경험이었을까 싶고, 실제로 1차 합격 평균 점수가 65점이 나왔습니다.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 어느정도 내 점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면, 낯선 지문에 대한 연습으로 타사 모의고사도 1-2회 정도는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시험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지식 수준과 노력의 정도와 관계 없이 장수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을 1차 시험 합격 후 정말 많이 들었고, 실제 그러한 상황인 장수생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웠습니다.

1차에 합격하면 마치 정해진 룰 처럼 타사 학원으로 옮겨서 2차를 준비하는게 단기 합격 방법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민사법에 박효근 교수님이 다시 2차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학원을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1차 수험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체력도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더이상 2차 수험생활까지 길어지면 정말 장수생의 길로 가거나, 내가 이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어떻게든 다시는 1차 시험을 보지 않고 첫 기득권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나만의 학습계획/하루 공부계획

1차 수험생활을 통해 집이라는 공간에서 혼자 공부기에는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느꼈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것 같아 2차 수험 생활을 시작하며 제 스스로 다짐한 것은

1. 학원 수업은 병원에 실러가지 않는 한 절대 빠지지 않는다!!
2. 학원에서 보는 모든 시험(꼭지시험, 모의고사)은 절대 빼먹지 않는다!!

이 두가지였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 2가지 다짐을 지킨것이 합격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공부 계획은 학원 실강을 다니다 보면,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학원 친구들과 공부 얘기, 일상 얘기들로 수다시간을 갖고 나면 금방 오후 3-4시가 되었습니다.

예비, 1순환때까지는 수업 끝나고 복습 3시간 정도(수업시간 포함 순공 7시간 정도)

단, 다음날 모의고사가 있는 경우 항상 최고답안을 내보겠다는 목표로 다음날 나올 가능성 있는 사례 문제들의 판례를 최소 2번 이상 써보았습니다.

스터디/서브노트

저는 2차 수험생활 기간동안 2명의 정말 소중한 동생들을 만나게되었습니다.

전과목 실강 커리큘럼을 전부 함께하는 친구들이었기에 박효근 교수님의 제안으로 3명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2차 1순환 부터 수업과는 별개로 민법, 민사소송법 최근 법무사 10년 기출문제와 법원행시, 사무관 승진 기출문제를 주 1회씩 답안 작성 연습을 하였습니다.

2순환, 3순환이 되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이틀에 한번, 3순환때는 매일 보기때문에 개인적으로 관력직 기출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시기는 1순환-2순환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정리 정돈을 정말 못하고.. 계획적이지도 못한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합격자들처럼 엄청 깔끔하고 가독성 좋은 서브노트를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반복해서 봐야할 필요성은 느꼈기에,

민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각 과목의 노트를 만들어

해당 사례 페이지(p.5) + 간단한 사실관계 + 설문에서 묻는 질문 + 기재해야할 판례 및 조문 및 사안의 포섭을 축약하여 답안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요약본은 주로 다음날 모의고사에 나올법한 법무사기출, 관련직 기출, 최신판례, 연수원 사례 중에서 별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개의 연습장에 판례를 반복해서 쓰며 키워드 위주로 암기한 후, 공부가 끝난 뒤 다음날 모의고사의 사전 연습처럼 답안을 축약하여 미리 써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 전에 교재가 아닌 이 요약본으로 복습 후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과목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과목별 공부법 / 취약 과목 극복법 / 과목별 학습 비중 / 과목별 추천 강좌 등

민법/민사소송법

단기 학원의 모든 교수님들이 너무 열정적하시고 수험생들을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정말 느껴질 정도로 늘 성실하게 강의에 임해주십니다.

저에게는 특히 그중에도 박효근교수님은 제 법무사 수험생활의 은인같은 분이십니다.

너무 찬양하는 글 같아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저는 1차 시험에서도 민법을 27개 맞아(54점), 흔히 안정 권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33-35개(66-70점) 맞추는 실력에 터무니 없이 부족했기에, 2차 수험생활을 시작 하며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국에 발목을 잡는 과목은 민법이다” 라는 말을 수도없이 들었고, 또한 과목별 과락율이 제일 높은 과목 또한 민법이거나 3교시 민사소송/민사서류작성 과목이었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1차에서 부족했던 민법 실력을 다른 수험생들과 비슷하게 올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교수님을 마주칠때마다 “교수님 저 민법 어떻게 공부해요? ㅠ” 라고 몇번이고 반복해서 여쭙보았고, 그럴때마다 교수님께서서는 직접 수험시절에 하셨던 공부 방법 및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추천해주셨습니다.

1.답안은 무조건 많이 써봐야한다.

많이 읽고 많이 안다하여 답안이 절대 잘 써지지 않는다. 손이 기억해서 글이 써지도록 기계적으로 써질때 까지 많이 써봐라.

2.목차나 형식에 얽매이면 장수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목차나 형식에 맞추어 쓰는 답안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형식을 갖춘 답안이 더 멋있어 보이고 잘 쓰는 답안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점수의 배점은 멋있어보이거나 잘 쓴것 같아 보이는 답안 형식에 배점이 있는게 아니라, 해당 판례의 핵심 논거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 적용되는 조문을 잘 적시했는지에 있다.

목차와 형식도 잘 쓰면서 판례의 논거도 잘 쓰는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4년의 연습이 필요하다.

너희는 130명 안에만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지, 멋있는 답안을 현출하고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니다.

그러니 1년 안에 2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목차와 형식은 최대한 간소화하고, 사례의 논점 파악과 판례 원문 현출에 집중해라

3.질문에서 물어보는 대로 답하고, 항상 설문의 점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라

출제자가 물어보는 단어, 문구 그대로 활용하여 답하고, 시간이 제한된 시험인 만큼 시간 안배가 중요하므로 아는 문제라고 흥분해서 5점짜리 문제에 15분을 허비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라.

이러한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실강 수업을 충실히 듣고, 판례 원문의 단어들을 (핵심 키워드는 물론, 관형사, 부사,서술어등도) 최대한 원문과 같게 현출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답안이 너무 길어져, 2순환때는 답안을 키워드 위주로 축약하여 쓰는 연습도 많이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연습이 실전에서 확실하게 아는 판례 문제의 경우 고득점 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된 것 같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주1회 답안 작성하는 스터디를 3순환까지 쉬지않고 다른 과목들 커리 진행중에도 계속 하였습니다.

해당 커리 진행중에 다른 과목을 매일 조금씩 보기가 힘들어, 주로 주말 하루를 잡아서 기출 사례 한 문제를 공부하고 답안 작성 연습을 3순환까지 쉬지않고 한 과목입니다.

형법

형법은 2차에서 처음 접한 과목이기에 과목 자체도 낯설었고 동차 시험때까지는 한문법전을 사용하여, 한자를 거의 모르는 저로서는 조문 찾기도 쉽지 않은 과목이었습니다.

다만, 김민준 교수님께서 시험출신입니다 보니, 키워드 위주로 판례를 암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 체크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형법도 실체법이다 보니, 총론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으나, 죄명이나 사실관계들이 재밌고 기억에 남기 쉬워 2순환 정도 되니 크게 부담되지 않는 과목을 느껴졌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를 적용한 모의고사 문제 및 최신판례들을 잘 정리해서 제공해주셔서 이번 시험에서 3문제 중 20점 배점의 1문제를 크게 실수했음에도 2문제가 모두 찍어주신 판례가 출제되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성요건 노트를 죄목별로 만들어보다가 결국에는 시간 부족 문제로 완성하지 못하였고, 사실관계의 판례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며 공부했습니다.

형법은 해당 커리 순환때 복습했고, 민사사건 서류작성과 같이 부담스럽지 않은 과목 커리 진행중에 최신판례나 김민준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문판례 자료등을 1-2회독 하였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저에게 있어서 동차때는 형법보다 훨씬 어렵고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순환부터 최철훈교수님 강의 커리를 충실히 따라가며, 형사소송법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수월해졌던 과목 중 하나입니다.

최철훈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판례 키워드 현출”에 따라 항상 판례 키워드 암기 연습을 하였고, 법전을 가장 많이 본 과목중 하나입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조문 위치를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보니 조문을 찾는것이 굉장이 빨라졌고, 매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뭐해, 빨리 찾아봐” 하시던 예비순환때와 달리 3순환때쯤 가니 교수님께서 “이거 몇 조에 있지?” 하시면 교수님보다 저희가 먼저 조문을 찾아 알려드릴 정도의 속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20대 아니면 판례 통으로 외워서 못써!, 키워드!! 핵심 키워드 반드시 외워서 꼭 써줘야 해!” 라는 강조 말씀에 따라 키워드 사실관계 파악과 키워드 암기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올해 기출문제 6개중 6개 전부 수업시간에 반복해서 해주셨던 판례 문제가 기출되어 답을 다 맞추고 키워드도 다 현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건 제가 조문 적시를 상세히 하다보니 시간 부족문제로 판례가 결론 위주로 짧아져 생각보다 고득점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민사사건서류작성

민사사건 서류작성은 저에게는 효자과목이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큰 실수를 불러온 애증의 과목이기도 합니다.

김지안 교수님의 강의는 본 시험에 가장 최적화 되어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강의 준비를 해오시고, 수험생들의 요구도 적극 반영해주시기때문에 교수님의 강의 커리만 따라간다면 반드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저는 박효근교수님의 권유로 스터디 그룹 동생들과 함께 2순환 민사사건서류작성 강의 전부터 법무사 최근 10년 기출 소장 답안 작성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2순환 민사사건 서류작성때 보는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고, 강의는 민법 주요 판례를 복습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미 풀었던 기출문제를 또 풀다보니 김지안 교수님께서 왜이렇게 다들 잘 쓰냐고 놀라며 물어보셨었습니다.

몇주 전에 써봐서 문제 자체가 암기가 되어있어서 그렇다. 실전 시험처럼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고싶은데 서점에 가도 괜찮은 소장 사례집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너무 감사하게도 3순환때 모든 문제를 최신판례가 적용되는 사례들을 만들어서 매회 2번씩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2일 연강, 4회차만에 모의고사 8개를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수험생만큼 함께 노력해주신 덕에 소장 점수 24.5점을 받게되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다만, 제가 서류작성에 대한 자신감과 완성도를 높이기위해 시간을 들여 답안작성을 하다보니.. 민사소송법 시간이 촉박해져 2문제를 틀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논술/부동산 등기신청 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은 제 수험생활을 통틀어 가장 어렵고 가장 고민이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키워드 암기를 하는 저의 공부방법과 달리, 암기력이 부족한 저는 두문자식 암기가 버거웠고, 1차 수험생활에서도 등기법 성적이 좋지 못했고, 2차에 와서도 같이 공부하는 동생들보다 주제에 따른 두문자 암기가 전혀 안되어있어 정말 많이 고민했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과목과 달리 부등만은 2순환부터 인강으로 들으며 조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두문자 암기 없이 주요예규와 선례만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은 실강으로 들으며 모든 모의고사를 치렀고, 암기력에 한계를 느껴 2순환부터는 강의를 듣고 조문과 규칙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답안 작성연습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기에 오영관 교수님의 관리반을 통해 학원에 나가 답안 첨삭은 계속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시험에서 7점과 8점짜리 문제를 틀려서 15점이 날아갔음에도 논술 기재 점수가 45점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등기신청서류작성 역시 교수님들 권유에 따라 신청서류를 교재에 있는 사례들은 혼자서 50개 이상 써보았습니다.

다만 등기신청서류작성은 혼자서 써보다 보니, 첨부서류근거정보를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잘 안쓰게되었고 결국 그것이 시험에서 기계적으로 써지지 않아 시간 부족이 있는 아쉬움이 발생했습니다.

주제4. 시기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시기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월별 또는 시기별(ex. 문제풀이 과정) 공부 방법 / 시기별 추천 강좌 또는 학습 방법 등

1순환까지는 수업을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오후에 순공 3-4시간 (강의시간 포함 하루 최대 7-8시간) 정도를 유지했고, 주말 하루는 폭 쉬려고 노력했으나, 가족 행사 또는 집안일들때문에 주중에 순공시간을 3-4시간 못채운 날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도 3-4시간 정도 복습을 했습니다.

2순환부터는 오후 순공시간을 기본 4시간으로 유지하되, 모의고사가 이틀에 한번 꼴로 있기때문에 그 전날은 다음날 시험 준비를 위해 정해진 시간 없이 공부했습니다.(모의고사 전날은 강의시간 포함 평균적으로 순공 9-10시간 정도 (강의4시간 + 복습 및 시험 준비 5-6시간))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3순환은 모든 과목이 매일 시험을 보기때문에, 오전에 모의고사 및 강의를 듣고, 해당 과목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공부한 뒤, 밤에는 다음 커리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새벽 5-밤11시, 순공 평균 10시간 - 최대 12시간)

법무사단기 교수님들의 강의 커리 및 커리에 따른 모의고사 및 추가 자료제공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고민 없이 이 커리만 충실히 따라간다면 커트라인보다 5-10저 높은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5. 후배 예비 법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나의 슬럼프 극복 방법 / 체력 관리법 / 수험생활에 도움이 된 꿀팁 /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저에게 2차 수험생활 기간은 정말 하루 하루가 지옥같이 힘들면서도 하루 하루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모순되는 감정이지만, 불합격하게되면 내가 마주쳐야할 현실과 상황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합격해야만 한다는 불안감과 압박감에 하루하루가 지옥같았고, 몇주동안 매일 아침 울며 학원에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매일 학원에 나와 실없는 소리들을 주고 받으며 깔깔거리며 웃고, 힘든 일들을 얘기하며 울고 수험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던 동생들이 함께 해줬기에 큰 슬럼프 없이 잘 버틸 수 있었고,

또 집에가면 늘 따뜻하게 맞아주고 늦은시간에도 늘 저녁을 차려주며, 주말도 없이 매일 새벽에 나가 밤 12시에 들어오는 와이프에게 서운하다 표현 한번 안하고 잘 버텨준 남편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선택한 길은 늘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든든한 양가 부모님들 덕에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매일 헬스장에 가 1시간 이상 운동하던 습관이 있었기에 1순환때까지는 매일 헬스장에 가서 최소 40분정도 운동을 하였고, 2순환부터는 시간 절약을 위해 운동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암기할때 종이에 연필로 쓰며 암기하다보니, 답안 작성을 많이 하기 시작하던 2순환부터 손목에 무리가 오는것을 느꼈고, 결국 8월에 팬을 칠수 없을 정도로 손목에 염증이 심해져 10월 말까지 손목에 염증 주사를 맞으며 손목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시험 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아 아직까지도 손목이 회복되지 않아 아대를 차고 있지만, 불합격 후의 현실에 비하면 비교할수도 없을 만큼 작은 통증이기에 천천히 재활 치료 받으며 회복할 예정입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길어지는 수험생활이 내 건강에 훨씬 안 좋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의 시간 허비를 최소화하고 빠른 기간 내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학원 커리에 충실하게따라 답안 작성 첨삭도 꼭!!! 받으시며 단기 합격하셔서 합격자 모임에서 뵙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 작성해 주신 합격 수기는 2024년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법무사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